2019.07.04
NO.8

BIFAN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Interview
<호신술의 모든 것> 라일리 스톤즈 감독

People
<초의태인간> 후지이 슈고 감독
<토막 살인범의 비밀> 리누스 데 파울리 감독

<리틀 드러머 걸> 김우형 촬영감독이 말하다

BIFAN 2019 어린이 심사단

씨네21

환경까지 생각한

풀무원샘물

풀무원샘물 by Nature는
초경량 용기와 에코캡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 환경까지
생각합니다.

Pulmuone
풀무원샘물

술만 마시면
잃어버렸던 내일..
이제는 상쾌하게!
플러스데이

비밀공장
SECRETFACTORY

즐거운 오늘 상쾌한 내일

음주전후 숙취해소 음료

#플러스데이 #숙취해소음료 #새싹보리
#즐거운오늘 #상쾌한내일 #하루가더

상품문의 및 고객상담
(주)에이블
070-8832-1183

event

10:00~20:00
스탬프 이벤트
BIFAN 굿즈샵, 안내데스크

10:00~18:00
로봇 이벤트 존
부천시청 잔디광장 내
컨테이너부스

15:00~18:00
레이저 서바이벌 게임
부천시청 잔디광장

15:00~19:00
판타지아 이벤트
부천시청 잔디광장 일대

15:00~19:00
너의 목소리가 들려[소리함]
부천시청 잔디광장

표지사진 오계옥
BIFAN 2019 어린이 심사단
김나경, 김민재, 김유곤, 김의태, 김채민, 노주영, 박예은, 박유나, 서정음, 송명근, 유예람, 유지수, 이다현, 장서희, 정예슬, 정태희, 최영은, 최정은, 한유찬.

staff

발행인	배경록
편집장	주성철
취재팀장	이화정
취재	김성훈 송경원 임수연
객원기자	이나경 김용진
사진	오계옥
사진객원	박종덕
디자인	김차인애 모보형
제작총괄	이지영
제작	이준용
인쇄	(주)에스제이씨성전

부천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판타스틱오피스 (부천시청 별관)
전화 032-327-6313

씨네21 데일리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 3층
어울마당 데일리 사무국

씨네21 주식회사 www.cine21.co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41길11
SK V1센터 E동 1102호
전화 02-6377-0500

이명세 감독, 배우 김혜수(왼쪽부터).

<첫사랑>의 깜짝 손님

특별전 '매혹, 김혜수'의 주인공 배우 김혜수가 또 한번 부천을 찾았다. 7월3일 저녁 8시 CGV소풍 2관에서 〈첫사랑〉(1993) 상영 후,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이명세 감독과 관객들의 대화 현장에 김혜수 배우가 깜짝 방문했다. 처음으로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안긴 작품 〈첫사랑〉을 26년만에 스크린에서 만날 수 있던 시간이 김혜수의 방문으로 더욱 빛났다.

글 이나경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왼쪽부터)김봉석 프로그래머, 가네코 슈스케 감독, (맨오른쪽)홍기훈 괴수영화전문가.

괴수를 사랑했던 우리들의 시간

올해 BIFAN 관객들을 설레게 했던 괴수영화 특별전에 대한 메가토크가 열렸다. 7월 3일 오후 5시 〈가메라 3 – 사신 이리스의 각성〉 상영 후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헤이세이 가메라 3부작을 연출한 가네코 슈스케 감독과 홍기훈 괴수영화전문가가 참석해 장르로서의 괴수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 줬다. 괴수장르의 열렬한 팬이기도 한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1995년 〈가메라 – 대괴수 공중결전〉을 시작으로 90년대 들어 새로운 감각으로 괴수물의 지평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네코 슈스케 감독은 할리우드로 확장 중인 괴수영화의 매력을 상세히 설명하며 "할리우드 영화가 처음엔 괴수의 모티브만 빌려갔지만 최근엔 괴수를 '카이주'라고 직역하는 것처럼 일본 괴수물의 정수를 이해하려 노력"한다고 평가했다. 괴수영화 팬들의 열화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낸 괴수 특별전 메가토크는 그야말로 괴수의, 괴수를 위한, 괴수에 의한 시간이었다.

글 송경원 · 사진 오계옥

주최 엣나인필름 총괄이사, 김보람 감독, 원승환 관장, 조영각 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왼쪽부터).

독립·예술영화 유통 배급 활성화를 위한 탐색

7월 3일 오후4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층 세미나실에서 독립 · 예술영화 유통 배급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BIFAN과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포럼은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한 독립 · 예술영화 배급, 상영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박채은 인디플러그 선임프로듀서가 발제를 맡아 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온다〉

깜짝 상영작 공개!

올해의 깜짝 상영작이 공개됐다. 7월5일 저녁 8시 CGV부천 4관에서는 나카시마 테츠야의 〈온다〉가 상영된다. 개막작 〈기름도둑〉은 7월 6일 오후 3시30분 CGV소풍 3관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7월7일 오후 1시 상영되는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는 관객 전원에게 〈로보트 대백과〉 책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마지막으로 7월6일 오후 1시 CGV소풍 2관으로 예정된 깜짝 상영작은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로 결정됐다.

B.I.G
BIFAN Industry Gathering

B.I.G 3일 막내려

B.I.G 폐막식 및 NAFF 시상식이 7월3일 저녁 7시 부천아트벙커B39에서 열렸다. 부천시로부터 제작비 1500만원 지원을 받는 부천상은 휴고 카이저 감독의 〈조난자〉, 바운드 엔터테인먼트에게 제작비 1500만원 지원을 받는 바운드 엔터테인먼트상은 린 판 감독의 〈도그 카우〉,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1000만원을 지원하는 NAFF상은 보아즈 아모니 감독의 〈손톱〉,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로부터 각 500만원을 지원받는 NAFF 코리언 어워드는 나카니시 마이 감독의 〈하나〉와 유은정 감독의 〈미망〉, DHL가 500만원을 지원하는 DHL상은 데이비드 창 감독의 〈접신: 지옥불의 퇴마사〉에게 돌아갔다. 노진수 감독의 〈전학생〉은 모네프상을 받아 편집 지원을 받고, 산티아고 페르난데스 칼베테 감독의 〈악마의 피〉는 모카차이상으로 최종 믹싱 및 색보정 DCP 제작지원을 받는다.

글 임수연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BIFAN 人

"화려함 이면의 절실함을 본다"

서재원 산업프로그램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 노르딕 장르 인베이전, 블러드 윈도우, 시체스 피치박스 등의 부문에서 프로젝트들의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관리한다.

올해 프로젝트 스포트라이트는 대만이다. 종교나 무속신앙에 대한 공포와 경외가 동시에 느껴지는 작품들. 아시아권 국가들이 공유하는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 흥미로웠다.

연기가 꿈이라고 들었다. 관련 일이 계속 있는 건 아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좀 더 영화와 가까워지고 싶어 영화제를 시작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이쪽 계통은 보통 화려한 모습만 조명되지 않나. 여기서 영화인들의 열정과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다.

글 김용진 객원기자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BIFAN 리멤버

1회 영화제 데일리에 기자로

임필성 · 감독

"데뷔하기 전 〈씨네21〉 객원기자였던 시절, 현재 부천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인 (김)봉석 형, (김)혜리 누나, (오)계옥 선배와 함께 제1회 영화제 데일리를 만든 적 있다. 객원기자였는데도 알렉스 콕스 등 유명 감독들의 인터뷰를 믿고 맡겨주었다. 알렉스 콕스가 맥주 한 캔 마신 채 데일리 사무실에 인터뷰하러 왔던 기억이 난다. (웃음) 시사회에 가서 많은 영화를 보고, 여러 감독들을 만난 덕분에 영화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이 넓어질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가라데로 젠더, 정체성, 혐오를 전복시키다"

〈호신술의 모든 것〉 라일리 스턴즈 감독

〈호신술의 모든 것〉은 올해 부천의 가장 화제작 중 하나다. 소심하고 사교적이지 않는 남자 케이시(제시 아이젠버그)가 장을 보고 집에 가다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들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라데 도장을 다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케이시가 가라데를 배우면서 점점 강해지는 대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면서 스스로를 고민하는 성장담이자 젠더, 혐오 같은 최근 사회문제까지 담아낸 블랙코미디이기도 하다. 장편 데뷔작 〈폴츠〉(2014)에 이은 두 번째 작품을 들고 부천을 찾은 라일리 스턴즈 감독은 "데뷔작을 찍은 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말했다.

각본을 직접 썼던데 어떻게 구상하게 된 이야기인가.

전작 〈폴츠〉(2014)를 찍은 뒤 브라질 무술 주짓수를 5년째 하고 있다. 무술을 좋아하고 가라데가 주짓수보다 좀 더 시네마틱하게 느껴져 가라데를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생각을 전복시키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 가라데를 활용해 젠더, 정체성, 혐오 등을 얘기할 수 있겠다 싶었다.

가라데는 언제 어떻게 알게 됐나.

부모님의 권유로 5살 때 배워서 노란띠를 땄다. 태권도, 유도도 유명하지만, 가라데는 미국인들 모두 아는 무술이다.

주짓수를 배운 건 케이시처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기를 겪으면 나와 그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시작했다. 그러다가 3년 전부터 단순한 운동이 아닌 주5일, 하루 2시간 이상 훈련을 전문적으로 해왔다. 지난해 LA에서 열린 주짓수 세계선수권 대회에 출전해 은메달도 땄다.

케이시는 귀여운 닥스훈트를 기르고, 프랑스어를 배우며 언젠가 프랑스에 가는 게 꿈이다. 인물을 설명하는 설정들이 귀여운데 자신을 얼마나 반영했나.

시나리오를 쓸 때는 나처럼 보이지 않길 바랐다. 그럼에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하고, 남자들과 경쟁하는 스포츠는 좋아하지 않는 케이시의 성격은 나와 똑같다. 나는 자신과의 싸움을 좋아해 집에서 투르 드 프랑스(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사이클 대회)를 보는 걸 즐긴다. 어릴 때 부모님이 닥스훈트를 키운 경험도 케이시에 반영됐다. 또 "케이시가 남자 이름일 수도 여자 이름일 수도 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있지 않나. 관객과의 대화에서 한 관객이 릴리라는 내 이름을 두고 "여성 감독인 줄 알았다"고 말해주었는데 남성도 여성도 모두 포함될 수 있는 케이시를 주인공 이름으로 설정한 건 무의식의 반영인 것 같다.

케이시에게 가라데를 가르쳐주는 도장 사범이 이야기의 안타고니스트 역할인데 영화 후반부까지 속내를 알 수 없는 인물이다.

영화의 주제는 흑백논리에 가까운데 이 캐릭터만큼은 회색 같은 역할로 묘사했다. 그의 의도가 좋은지 나쁜지 파악하기 힘들 게 전개되다가 마지막에 이르면 그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연출했다.

이머진 푸츠가 연기한 부사범은 웬만한 남성들보다 가라데 실력이 빼어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랫동안 도장에서 성차별을 받아온 인물인데.

실제로 최근 많은 여성들이 가라데를 배우기 시작했지만 도장에는 여전히 남성들이 많다. 영화는 직접적으로 성차별 문제를 얘기하지 않나. 남성성을 다루는 이야기라 여성 캐릭터가 딱 한명 필요했고, 그 여성은 다른 남성들보다 훨씬 실력이 좋은데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싶었다. 이머진 푸츠가 시나리오를 쓸 때 유일하게 염두에 둔 배우다. 이 캐릭터를 통해 페미니즘 주제를 드러내려고 했다.

차기작은 뭔가.

아직 자세하게 말할 수 없지만 좋은 프로듀서와 함께 〈유어〉(Your)라는 제목의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여성 복제인간이 주인공인 블랙코미디다. 〈폴츠〉 이후 〈호신술의 모든 것〉을 찍기까지 5년이 걸렸는데, 차기작은 곧바로 진행돼 좋다. 앞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싶다.

글 김성훈 · 사진 오계옥

"1980년대 할리우드 호러 스타일로 찍으려고 했다."

〈초의태인간〉 후지이 슈고 감독

〈초의태인간〉은 그림 한장에서 출발한 이야기다. 나마하게라는 요괴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림이다. "그 그림으로부터 강한 영감을 받았다. 나마하게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아이를 겁줄 때 꺼내는 존재다. 아동학대를 뜻하기도 하다." 영화는 깊은 숲속의 아침, 후마가 잠에서 깨면서 시작된다. 갑자기 나마하게가 나타나 후마, 신혼부부 그리고 신부의 아버지 등 여러 사람을 폐가에 몰아넣고 난도질을 하고, 고문한다.

〈초의태인간〉은 1970년대 일본 괴기영화의 전통을 따르되,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사건〉처럼 신체를 썰고 자르고, 사람이 마구 죽어나가는 1980, 90년대 미국 스플래셔 호러무비 또한 연상케 하는 공포영화다. "시각특수효과(VFX) 없이 연기, 연출만으로 잔혹한 장면들을 만들어낸 1970, 80년대 할리우드 호러영화 감독들을 존경한다. 이 영화를 당시 미국 호러 영화 같은 스타일로 만들고 싶었다." 스포일러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이 같은 아비규환의 상황과 후마의 아들을 통해 후지이 슈고 감독은 "아동학대는 옳지 않다"는 교훈을 던진다.

글 김성훈 · 사진 박종덕 객원기자

윤리에 고심하다

〈토막 살인범의 고백〉 리누스 데 파울리 감독

리누스 데 파울리 감독에게 택배는 동시대성이었다. 그는 낮에 집을 비운 이웃들을 위해 택배를 대신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요즘은 모든 걸 택배로 해결한다. 대면이 불편한 것이 된 것 같다." 주인공 피트가 꼭 그렇다. 두문불출하며 디지털 상에서만 인간관계를 맺는다. "문제는 이런 이들의 이상주의다. 그들은 실제 삶에서 만나는 윤리적 딜레마들을 모른다." 온라인 이상주의자가 오프라인 세상에서 윤리적 파국을 맞는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묘사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도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독일의 몇몇 비평가들은 내가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한다. 그런데, 잔혹한 걸 프레임 밖으로 밀어내기만 하면 해결되는 것인가?" 물론 자세한 묘사는 지양했으며 음향효과도 최대한 절제했다. "폭력을 관객이 즐기게끔 하는 건 목표가 아니었다. 거기에 이르기까지 축적되는 캐릭터의 감정이 있다. 그 죄책감, 후회, 두려움을 함께 느끼길 바랐다. 한글 제목을 보시고 길티 플레저를 기대한 관객들에겐 미안하다. (웃음)"

글 김용진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SCH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등급 Rates
ⓖ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상영관 Theaters
BG 부천체육관 **CH** 부천시청 어울마당 **FA** 부천시청 판타스틱큐브 **LS** 부천시청 잔디광장 **BU3** CGV부천 3관 **BU4** CGV부천 4관 **BU5** CGV부천 5관 **BU6** CGV부천 6관 **BU7** CGV부천 7관 **BU8** CGV부천 8관 **SO2** CGV소풍 2관 **SO3** CGV소풍 3관 **SO4** CGV소풍 4관 **SO5** CGV소풍 5관 **SO6** CGV소풍 6관 **MM** 한국만화박물관

온다
It Comes

나카시마 테츠야 | 일본 | 2018년 | 134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4 SO3 17:00 **7.5** BU4 20:00 **7.7** SO4 18:00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2006), 〈고백〉(2010), 〈갈증〉(2014) 등을 연출한 나카시마 테츠야의 신작이 왔다. 주위에 늘 친구가 많은, 과자 회사 우수사원인 히데키(쓰마부키 사토시)는 카나(구로키 하루)와 결혼해 딸 치사를 키우며 행복하게 산다. 그가 쓴 육아 블로그는 인터넷에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시에 남자들의 시샘 대상이다. 어느 날, 히데키는 정체불명의 존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쫓아왔던 이상한 존재는 히데키에게 "(어딘가로) 가자"고 말한다. 불안감을 느낀 그는 프리랜서 기자 노자키(오카다 준이치)로부터 그의 전 여자친구인 영매사 마코토(고마쓰 나나)를 소개받는다. 히데키는 마코토, 그녀의 언니이자 최고의 영매사인 코토코(마쓰 다카코) 두 자매와 함께 그 존재를 쫓는다.
영화는 히데키에게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존재를 맥거핀 삼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히데키 가족의 삶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 그들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알 수 없는 존재는 왜 히데키를 쫓는 걸까. 카나의 삶은 〈혐오스런 마츠코의 일생〉의 마츠코를 떠올리게 할 만큼 애잔하고, 마코토와 코토코 자매 영매사가 귀신 같은 존재와 맞서는 장면은 오컬트 장르로서 긴장감이 넘친다. 〈온다〉는 일본 호러 대상을 받은 소설 〈보기왕이 온다〉를 각색한 작품이다. 김성훈

학교는 끝났다
School's Out

세바스티앙 마르니에 | 프랑스 | 2018년 | 103분 | 월드 판타스틱 블루
7.7 SO5 18:00

영재반 담임이 교실 창밖으로 투신한다. 대체 교사로 반을 맡게 된 피에르 호프만(로랑 라피트)은 비극적인 현장에 있었음에도 지나치게 침착하고 조숙한 여섯 아이에게 눈길이 간다. 그러던 중 서로를 극한으로 몰아가며 가학 행위를 하고,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는 여섯 아이를 목격한다. 그들이 묻어 둔 DVD는 화재, 폭발, 도축,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종말을 연상시키는 푸티지로 가득 차 있다. 지속해서 걸려오는 발신자 불명의 전화까지 더해지며 히스테릭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피에르. 떼로 모여드는 바퀴벌레, 녹이 슨 듯 오염된 물, 아이들의 환영, 이유 없이 꺼져버리는 전구 등의 이미지를 통해 피에르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탁월하게 묘사한다. 제51회 시체스국제영화제 오피셜 판타스틱 부문 특별언급작으로 크리스토프 듀 포세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이나경 객원기자

위 아 리틀 좀비
We Are Little Zombies

나가히사 마코토 | 일본 | 2019년 | 120분 | 부천 초이스: 장편
7.3 CH 17:00

"이건 감정 없는 네 아이의 이야기다." 주인공 히카리가 영화의 시작을 알린다. 히카리, 이쿠코, 유키, 이시, 네 아이는 부모님의 화장터에서 뭉친 특별한 아이들이다. 어린 나이에 각자의 부모님을 잃었지만 아이들은 슬프지 않다. 외려 그 무심함에 어른들이 타박할 정도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감정 없는 좀비라고 여기고 감정을 배우기 위한 여정을 떠난다. 각 에피소드들은 마치 게임의 미션처럼 도전과 완수의 방식을 띤다. 게임 속에서는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없다는 듯이. 여정의 클라이맥스에서 아이들은 록밴드를 결성해 일본열도를 뒤흔든다. 8비트 음악과 레트로 게임의 인터페이스, 사이키델릭한 특수 효과, 불균질한 촬영과 편집은 일본 사회를 효과적으로 풍자하면서도, 아이들의 내면을 놓치지 않는다. 냉소와 블랙유머가 가득한 독특한 성장드라마. 김용진 객원기자

버드 케이지
Bird Cage

나카타 케이 | 일본 | 2019년 | 117분 | 월드 판타스틱 레드
7.4 BU4 14:00

가까운 미래의 일본, 정신병자로 지목되면 아무런 증명 절차 없이 바로 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이 생긴다. 길을 걷던 한 남자는 노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병원으로 끌려간다. 병원에서 남자에게 가해지는 치료법은 기이하고 끔찍하기 그지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남자는 병원에서 만난 다른 사람들과 탈출을 시도한다.
〈버드 케이지〉는 군국주의를 향한 집단의 비틀린 환상을 전위적인 스타일로 담아낸 영화다.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과 망상이 뒤죽박죽 섞인, 혼란 그 자체다. 제 기능을 못하는 서사를 대신 하는 건 노골적인 표현과 직관적인 상징의 콜라주다. 새장에 갇힌 여자나 환생하는 남자의 사연 등 집단의 광기에 대한 냉소적인 상상력이 몽환적인 화면을 거쳐 기이한 방식으로 쌓인다. 낯설면서도 다채롭다. 송경원

〈리틀 드러머 걸〉 김우형 촬영감독 마스터클래스 현장.

정확하게, 완벽하게 모든 신을 준비한다

〈리틀 드러머 걸〉 김우형 촬영감독 마스터클래스

7월2일 저녁 18시 30분부터 부천아트벙커B39 MMH홀에서 '김우형, 〈리틀 드러머 걸〉 촬영의 모든 것' 마스터클래스가 열렸다. 한국 촬영감독 최초로 영국 아카데미 TV크래프트 어워즈(BAFTA)에서 촬영 · 조명상을 받은 김우형 촬영감독에게 〈리틀 드러머 걸〉 프리 프러덕션부터 촬영 전반, 카메라 뒤 숨겨진 이야기까지 전해 들은 뜻깊은 시간이었다. 두 시간 가량 이어진 마스터클래스 현장의 열기를 전한다.

프리 프로덕션 단계

BBC에서 작품을 한다고 박찬욱 감독님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리틀 드러머 걸〉에 합류하게 됐다. 1시간짜리 드라마 6편을 찍는다고 했고, 전체 회차는 81회로 정해져 있었다. 우리나라 드라마 스케줄에 비하면 여유가 있지만, 일반적인 영화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을 촬영해야 하는 일정이었다.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81회차 촬영을 했다. 영국에서 두 달, 그리스와 체코에서 한 달씩, 4개월간의 여정이었다. BBC가 화면비를 무조건 16:9라고 정해줬다. 회차, 로케이션 스케줄, 화면비는 이미 정해졌고, 다른 부분에서는 자유를 존중해줬다.

촬영감독이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은 연출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찬욱 감독은 의견 제시에 있어 굉장히 명확한 편이다. 거기다 정말 좋은 스틸용 카메라를 여러 대 가지고 계시고, 직접 로케이션 현장 사진을 찍기도 한다. 덕분에 감독님과의 소통은 아주 수월했다. 박찬욱 감독님은 사진뿐 아니라 영상에도 일가견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카메라와 렌즈 테스트를 진행했다. 파나비전 런던에 가서 가장 오래된 렌즈를 다 보여 달라고 했다. 갈 때마다 정말 많은 종류의 렌즈를 테스트했고, 촬영 후 건물 내에 있는 영사실에서 바로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찍고, 확인하고, 홍차 한 잔 마시고, 찍고, 확인하고, 홍차 한 잔 마시고. (웃음) 이 과정의 무한반복이었다. 말로만 듣던 카메라 렌즈들을 테스트할 수 있던 그 시간이 무척 행복했다. 렌즈 성능이 너무 좋았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까. (웃음)

〈리틀 드러머 걸〉

여러 가지 카메라 렌즈로 테스트를 하던 중, 아름다운 왜곡이 생기는 아나모픽 렌즈가 꼭 마음에 들었다. 화면비가 16:9인데 왜 아나모픽 렌즈를 쓰려고 하느냐고 BBC에서 질문할 것이기에 테스트를 통해 증명해야 했다. 길게 찍혔을 때 좌우를 자르면 아름다운 왜곡이 버려져서 너무 아깝더라. 좌우를 버리지 않고 16:9를 한쪽으로 몰아서 추출하는 방식, 촬영 중에 움직임을 가지기, 테이크 중에 좌에서 우로 커트하기 등을 테스트하고 있었는데, 파나비전에서 카메라 대여를 맡고 계신 분이 이 오래된 렌즈로 뭘 하냐고 물어왔다. 위의 사항을 설명했더니 "너 상 받겠네?"라고 말씀하시더라. (웃음) 또 하나의 문제는 해상도였다. 색 보정실에 가서 4K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상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게 구현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다행히도 해답을 찾았다.

미술팀에서 공간의 컬러 세팅을 완료했을 때, 촬영 후 색보정까지 테스트 해보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스킨 톤을 확인하고 보정까지 했을 때 배경의 컬러가 뒤틀리는 정도를 내가 알아야만 미술감독에게도 피드백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프리 프러덕션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몇 개의 색보정 데이터를 완성했다.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박찬욱 감독님이 보는 화면은 원본이 아닌 푸른 이미지가 덧씌어진, 본편과 비슷한 화면이었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시퀀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시퀀스를 준비하던 시간이 기억에 남는다. 몇 달 전부터 그리스 문화재청에 허락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에는 정해져 있는 신이 거의 없었다.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 동선을 꼼꼼히 짰다. 이 거대한 건물의 조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요즘 촬영 현장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노출계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밝기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그래서 런던의 큰 건물 벽면에 조명을 쳐놓고 그 앞에 사람이 서서 그림자를 만들어 봤다. 그림자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조명기의 종류와 개수, 거리, 노출값 등을 테스트한 것이다. 아이폰에 끼워서 쓸 수 있는 최신형 노출계를 구입했다. 뒤집으면 색온도계로도 쓸 수 있는 제품이었는데,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로 유용하게 썼다. 실제 건물에는 관광객을 위한 조명이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끌 수 있는지를 문화재청과 얘기했다. 촬영에 협조하며 조명을 제어해줄 수는 있지만, 무전으로 연락을 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못 맞출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스탭들과 논한 뒤, 아크로폴리스의 조명을 막아버릴 수 있는 캡 호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기존의 조명을 캡 호일로 막아버리고, 별도로 준비해간 램프를 켜서 촬영에 들어갔다.

자동차 주행, 그리스 빌라 시퀀스

자동차 주행, 그리스 빌라 시퀀스도 공을 많이 들였다. 정확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신을 한 치의 오차없이 준비했고, 거의 그대로 촬영이 진행됐다. 박찬욱 감독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식의 작업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박찬욱 감독님은 다음날에 찍을 장면을 하나씩 다 묘사하시는 꼼꼼한 분이다. 자동차 장면이 엄청 떨린다고 어떻게 흔들었냐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다. 레커차인데, 자체가 너무 흔들려서…. (웃음) 근데 그 흔들림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실제로 정말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 사실감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바깥쪽에 차만 나오는 주행 숏은 체코의 레이스 트랙을 빌려서 촬영했다. 이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 오래된 벤츠로 촬영을 했는데 스턴트맨들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한 커트를 찍고 나서 바로 기름이 새기 시작했다. 제작자들은 모두 패닉이 왔는데, 체코의 액션 감독이 새벽 1시 30분에 본인의 조수를 어디론가 보내더라. 그런데 그 조수가 와인 한 병을 사왔다. 유럽에서 그 시간에 와인을 구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사왔는지 아직도 풀리지 못한 의문으로 남아있다. 그 와인의 코르크로 벤츠의 연료통을 막고 겉면에 청테이프를 발라서 우여곡절 끝에 스턴트 신을 다 찍었다. 다음에 벤츠를 확인했더니, 고장 난 부분을 다 바꿨더라. 그게 영국인들의 업무수행 방식이고, 체코인들의 업무수행 방식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웃음)

글 이나경 객원기자 · 사진 오계옥

07.04.목(thu)

	1	2	3	4
CH City Hall, Main Theater (2F)	701 11:00 ~ 12:58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 118min ⑮	714 14:00 ~ 16:19 도둑들 **The Thieves** 139min ⑮	727 17:00 ~ 18:44 GV 호신술의 모든 것 **The Art of Self-Defense** 104min ⑮	739 20:00 ~ 21:36 GV 다니엘 이즌 리얼 **Daniel Isn't Real** 96min ⑱
MM Korea Manhwa Museum	702 11:00 ~ 12:22 테스와 보낸 여름 **My Extraordinary Summer with Tess** 82min Ⓖ	715 14:00 ~ 15:56 고스트 버스터즈 **Ghostbusters** 116min ⑫	728 17:00 ~ 18:35 원더풀 데이즈 **Wonderful Days** 95min Ⓖ	740 20:00 ~ 22:19 블라인드 멜로디 **Andhadhun** 139min ⑫
FA City Hall, Fantastic Cube (1F)	703 11:00 ~ 12:44 열한번째 엄마 **My 11th Mother** 104min ⑫	716 14:00 ~ 18:05 이누가미의 결혼 **The Dog Bridegroom** 245min ⑮		741 20:00 ~ 21:21 아빠의 효녀 조이 **Daddy's Girl** 81min ⑱
SO2 CGV Sopoong 2	704 11:00 ~ 12:50 나인 투 파이브 **Nine to Five** 110min ⑮	717 14:00 ~ 16:00 굿바이 싱글 **Familyhood** 120min ⑮	729 17:00 ~ 18:16 물비늘 **Mulbineul** 76min ⑮	742 20:00 ~ 21:39 블러드 심플 **Blood Simple** 99min ⑱
SO3 CGV Sopoong 3	705 11:00 ~ 12:14 단편 걸작선 14 **Short Films 14** 74min ⑮	718 14:00 ~ 15:45 주디와 펀치의 위험한 관계 **Judy and Punch** 105min ⑮	730 17:00 ~ 19:14 온다 **It Comes** 134min ⑮	
SO4 CGV Sopoong 4	706 11:00 ~ 12:25 고질라 vs 헤도라 **Godzilla vs. Hedorah** 85min Ⓖ	719 14:00 ~ 15:23 메카고질라의 역습 **Terror of Mechagodzilla** 83min Ⓖ	731 17:00 ~ 18:24 대괴수 갓파 **Gappa, The Triphibian Monster** 84min Ⓖ	744 20:00 ~ 21:36 가메라 - 작은 용사들 **Gamera the Brave** 96min Ⓖ
SO5 CGV Sopoong 5	707 11:00 ~ 12:20 코리안 판타스틱: 단편 2 **Korean Fantastic: Shorts 2** 80min ⑱	720 14:00 ~ 15:58 인생게임 **The Game of Life** 118min ⑮	732 17:00 ~ 18:39 GV 어서오시게스트하우스 **Welcome To The Guesthouse** 99min Ⓖ	745 20:00 ~ 21:42 도어락 **Door Lock** 102min ⑮
SO6 CGV Sopoong 6	708 11:00 ~ 12:36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When Harry Met Sally** 96min ⑮	721 14:00 ~ 15:12 단편 걸작선 9 **Short Films 9** 72min ⑫	733 17:00 ~ 18:04 GV 좀비파이터 **Zombie Fighter** 64min ⑮	746 20:00 ~ 21:34 내 얘기를 찍어줘 **Island** 94min ⑮
BU3 CGV Bucheon 3	709 11:00 ~ 12:29 단편 걸작선 6 **Short Films 6** 89min ⑮	722 14:00 ~ 15:21 GV 작은 방안의 소녀 **The Girl in a Tiny Room** 81min ⑮	734 17:00 ~ 18:45 포르노 엑스트라의 종말 **Mope** 105min ⑱	747 20:00 ~ 22:56 GV 슈퍼 디럭스 **Super Deluxe** 176min ⑮
BU4 CGV Bucheon 4	710 11:00 ~ 12:43 심야 주유소의 공포 **Open 24 Hours** 103min ⑱	723 14:00 ~ 15:57 버드 케이지 **Bird Cage** 117min ⑱	735 17:00 ~ 18:37 악의 **Vicious** 97min ⑮	748 20:00 ~ 21:30 종말 - 그 후 **Endzeit - Ever After** 90min ⑫
BU5 CGV Bucheon 5	711 11:00 ~ 12:34 운전 강사의 특이한 비밀 **Extra Ordinary** 94min ⑮	724 14:00 ~ 15:49 GV 별장에서 생긴 일 **The Lodge** 109min ⑮	736 17:00 ~ 18:47 GV 아빠? **Is That You?** 107min ⑮	749 20:00 ~ 21:31 GV 고스트 마스터 **GHOSTMASTER** 91min ⑮
BU6 CGV Bucheon 6	712 11:00 ~ 12:32 행복의 진수 **Recipe for Happiness** 92min Ⓖ	725 14:00 ~ 15:27 영화로운 나날 **Film Adventure** 87min ⑫	737 17:00 ~ 18:40 GV 더 룸 **The Room** 100min ⑮	750 20:00 ~ 22:01 GV 사르가소해의 기적 **The Miracle of the Sargasso Sea** 121min ⑱
BU8 CGV Bucheon 8	713 11:00 ~ 12:13 단편 걸작선 17 **Short Films 17** 73min | 80p ⑫	726 14:00 ~ 15:10 단편 걸작선 18 **Short Films 18** 70min | 82p ⑮		751 20:00 ~ 21:21 GV 토시마엔 괴담 **Toshimaen: Haunted Park** 81min | 51p ⑫

등급 Rate

Ⓖ 전체 관람가	General
⑫ 12세 이상 관람가	Under 12 not admitted
⑮ 15세 이상 관람가	Under 15 not admitted
⑱ 18세 이상 관람가	Under 18 not admitted

CINÉ OUTDOOR

"전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 공급하는 야외도어 전용 스마트 디바이스"

(주) 현대IT
본사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10길 36 세종텔레콤 지식산업센터 5층
공장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06
구매문의 1566-7713
AS문의 1600-2376
www.hdit.co.kr

금융에서 유통까지 다양한 농협에서

포인트를 쓰담쓰담

농협의 통합 멤버십 NH멤버스로 마트, 금융, 주유, 농촌 등
언제나 어디서나 즐거운 포인트 생활을 누리세요

NH포인트 적립 및 사용처

농·축협	전국 농·축협
유 통	농협하나로마트, 농협목우촌(또래오래), 농협홍삼(한삼인), 농협몰, 농협주유소, 신토불이 로컬푸드, 안성팜랜드, 축산물프라자, 자재센터
금 융	NH농협은행, NH농협카드,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기 타	전국 3만여개 NH포인트 적립 가맹점 [CGV, 11번가, 인터파크쇼핑(모바일), 요기요 등]

※ 일부 서비스는 NH농협카드(신용/체크) 보유자만 이용 가능

지금 QR코드 스캔하고
다운로드 받기

다운로드 방법 · 상단의 QR코드 이미지를 스마트폰 QR리더기로 인식하여 앱다운로드 · 구글Play,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NH멤버스' 검색 후 다운로드
· 자세한 내용은 NH멤버스 고객센터(1644-7226)를 통해 문의하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1178 (2019. 02. 07 ~ 2020. 12. 31)

NH 농협